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철판의 가변적 물성을 통한 관계 표현 작업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조소과

성 지 훈

철판의 가변적 물성을 통한 관계 표현 작업 연구

지도교수 오 귀 원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조소과
성 지 훈

성지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_____ 이 용 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심 상 용 _____ (인)

위 원 _____ 박 제 성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작업연구는 작업의 재료로 철판이 연구자의 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작업의 시작점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9mm 두께의 철판은 작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 보였다. 본인은 작업의 재료를 나와 관계 맺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재료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물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생명력을 부여한다. 평면성을 가진 강한 철판은 물성의 변화를 통하여 생성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조형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이 곧 생명력으로 표출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재료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고, 관계의 이해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관계 중심적 세계인식이 바탕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업은 본인과 재료의 상호 존재의 확인이고 이해다.

연구는 철판의 표현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철을 선재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로 변형 가능한 철판의 조형 요소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철판의 구조적 가변성은 여러 조합의 관계를 표현해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인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질서를 볼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이면 세상과의 관계가 확장되면서 나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작업에서 관계 맺기는 본인에게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대상을 통해 나를 보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면서 파생되는 여러 관계의 질서를 관찰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대상, 생명력, 관계 중심적 세계인식

목 차

들어가며 ····· 1

재료와 생명력 ····· 3

대상으로서 재료 ····· 3

생명력으로 작용하는 조형 요소 ····· 6

작업의 전개 ····· 9

1. 내부의 관계

작업 1 ····· 9

작업 2 ····· 14

2. 확장된 관계

작업 3 ····· 17

작업 4 ····· 21

작업 5 ····· 24

작업 6 ····· 26

3. 새로운 관계의 시작

작업 7 ····· 29

나가며 ····· 31

도판 목차 ····· 32

Abstract ····· 33

들어가며

본인에게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눈으로 본 표면에서 시작해서 내부로 들어가 물질을 만나고 관계 맺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인식에 머물렀던 대상을 체험하며 사물의 본질에 다가간다. 작업의 재료는 나에 의해 재인식되거나 발견된 부분이 드러나며, 전과는 다른 대상이 되어 주변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표면적인 모습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점차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겉으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거나 발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매우 방어적이거나 무뚝뚝하고 외부상황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상대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여린 심성과 속정 깊은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만약에 그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나의 의식은 그의 겉모습에 머물렀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도 같은 우를 범할 때가 많다. 우리는 세계를 인식할 때도 일부분의 모습으로 전체를 짐작하거나 보이는 현상을 쉽게 전체로 판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이미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사고된 것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재료 내부의 물성을 드러내고, 그 물성을 이용하여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렇듯 재료의 내부로 침투하여 관계 맺음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속성을 드러낸 재료는 생명력을 부여받은 대상으로 존재한다.

세상에는 고정된 사물도 불변의 관계도 없는 것 같다. 세상은 무수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해 가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열려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흐르는 관계의 질서를 찾는다. 여기서 질서는 관계에서 작용하는 원리이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개체의 본질일 수 있다. 이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시선이거나 경험일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의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작업을 통해 공유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와 생명력

대상으로서 재료

본인의 작업은 재료를 만나며 시작된다. 그 재료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물질로서의 특성이다. 이유는 물질이 지닌 속성이 '자연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보며, 그 물질을 관찰함으로써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서'란 물질이 가진 속성, 즉 형태나 질감, 물리적 성질이 될 수도 있고 주변 환경과 반응하는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화강석은 주변 흙과 같이 거칠 수도 있고, 표면에 물이 미끄러질 정도로 매끄러울 수도 있다. 흙과 같이 거친 표면은 물을 흡수하며, 마모된 매끄러운 돌은 물을 흘려보낸다. 재료에 내재한 속성에 따라 주변 환경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낸다. 본인은 이렇게 재료에 내재한 질서가 '자연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작품 1] <무제> 화강석 2000

[참고작품 2] <무제> 화강석 2007

본 연구 작업은 재료에 내재한 질서를 파악하고, 그것의 형태나 질감이 변화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재료의 다양한 속성을 발견하고, 외부환경과의 긴장감이나 균형감, 확장성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참고작품 1]처럼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질감과 대비되는 성질을 드러내거나 [참고작품 2]처럼 거친 화강석의 표면을 부각시켜 재료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내재적 객관)에 대한 재인식이다. '화강석은 거칠다.', '깨진 면은 날카롭다.', '오랜 마찰로 표면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돌덩이에서 대비시켜 드러냄으로써 항상 그렇게 있어서 인식되지 않던 것을 다시 보고, 무심했던 것에 시선을 주길 바라는 것이다.

재료는 작가의 창작물을 위한 '질료'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질서를 가진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재료를 하나의 타자나 대상으로 본다면, 작업은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본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재료를 대하는 태도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의 겉모습으로 시작해서 내면을 마주하고 교감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 그와 같이 하나의 재료를 대할 때도 그것을 관찰하고 내가 들여다본 내부의 속성을 부각시키면서 대상에 대해 깊게 인식하게 되고, 그 대상은 나를 투영하는 거울로 작용한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나와 관계 맺는 재료를 세상에 드러낸다.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대상으로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재료는 물질 그 자체로 나와 관계 맺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단순히 물질 자체로 보면, 석재공장에 쌓여 있는 것도 돌이고 본인이 부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도 돌이다. 철공장 한구석에 먼지 쌓인 채 기대 있는 것도 철판이고 두드려 가공한 것도 철판이지만 본인의 의식과 반응한 철과 공장에 놓여있는 철은 같지 않다.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

돌을 재료로 작업한 경우 어떤 재현된 형태가 아닌 최대한 돌 자체로 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돌덩이는 사람의 시선을 끌며 들여다보게 한다. 거친 표면의 화강석은 흔하게 볼 수 있고 오랜 시간 풍화되어 매끄러워진 화강석도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단지 돌을 더 유심히 볼 수 있게 두 가지 표면을 대비시키는 흔적을 만든다. 작업의 목적은 그 돌을 단순히 관심 있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돌의 속성이나 물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무감각하게 내재해 있는 사유나 주변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재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들여다봄과 보여짐이라는 인식의 상호작용으로 돌은 생명력을 얻는다. 철판으로 만든 작업도 바로 철판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판을 생명을 가진 개체의 모양으로 오리거나 두드려 생명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라는 물질 그 자체를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철로 된 구조물과 마주하게 되면, 부딪치지 않게 더욱 주의하게 된다. 철은 다른 것과 맞섰을 때 다른 대상을 압도하는 강한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껍고 견고한 철판에서 얇게 말린 철 뭉치가 나온 것[1]을 보면 처음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심히 관찰한다. 사람들은 사각 틀과 철 뭉치로 시선이 오가면서 철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재료를 사물 그 자체로 있게 하며 잠재된 속성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재료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외부와 반응하게 한다.

---

1) 본 논문의 p.11 <작업 2> 참고

이러한 맥락으로 연구자의 작업에서 철판이나 가공된 나무는 큰 틀에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철판의 경우 완성된 작품이 재료와 동일한 질량을 유지한다. 작업에서 재료는 큰 틀이 되고 나의 흔적이 그것의 부분으로 재료 안에 담기길 바란다.

생명력으로 작용하는 조형 요소

위에서는 재료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연구자의 의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과 반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이런 의식에 근거해 보여지는 몇 가지 조형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선택한 재료가 하나의 개체인 대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재료의 원형을 유지한다. 그로 인해 유일무이하며 복제나 재현도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참고작품 1]처럼 가공되지 않은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재료는 그 형태로 인해 작업의 내용이 담기고 내부나 주변과의 의미가 발생한다. 그런 이유로 재료를 다룰 때 계획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재료와 적극적으로 교감한다. 이런 과정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상대를 처음 알아갈 때, 그 긴장감이나 세심함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작업을 통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재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본 연구 작업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산업재의 철판으로 작업을 시작하면서도 재료의 원형을 유지한 것은 작업의 개념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재료에 대한 의식이 작용한 것 같다. <작업 1, 2>에서처럼 철판의 외부를 그대로 남겨두어 철판 그 자체의 사물을 개체적 대상으로 있게 하고 동시에 그것에서 변화되어 나온 유기적 형태가 철판임을 인식하게 하여 철판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작업 3, 4, 6>에서 철판과 하나

로 결합한 나무도 원목의 판을 그대로 이용해서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고 유일한 개체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 대조/대립적인 형태나 구조를 통해 재료/사물의 생명력을 읽어 낼 수 있다.

그 대립 중 하나는 평면과 입체의 대립이다. 나의 작업에서는 평면적인 재료에서 입체가 뻗어져 나오거나, 입체적인 요소가 평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재료가 평면적일수록, 입체의 효과는 더 부각된다. 본 작업에서는 평면의 일부를 입체로 만들어 공간으로 돌출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평면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입체는 더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반대로 입체와 함께 있을 때 평면은 더 정적이고 우리가 있는 공간과 단절된 느낌을 준다. 철판이 작업의 재료로 눈에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는 평면의 단일한 재료에서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물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재료 내부에 있는 두 속성 간의 대립이다. 예를 들면, 철이라는 재료의 속성 중에 차갑고 단단한 느낌과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하나의 재료에서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작업 1, 2>와 같이 정제된 표면을 가진 사각의 기하학적 형태와 단조작업을 통해 유기적 형태로 이어져 나온 선의 대립은 철판과 대비를 이루며, 유연하게 변화된 부분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 재료와 다른 재료의 속성, 혹은 한 재료와 그것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이나 공간과의 대립이다. 가령 무거운 철이 얇고 긴 형태로 중력에 저항하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태에서 처지게 만드는 중력이라는 외부의 힘과 그에 저항하는 구조와 내부의 힘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평면의 물체에서 외부와 긴장감을 만드는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주변과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작업에서 설명되는 생성이나 생명력은 작업 내에서 긴장감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나에게 긴장감이란 살아있음이다. 살아있음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떨어진 낙엽은 바람을 따라 쓸려가지만, 나무에 매달린 잎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버틴다. 긴장감은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중력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물리적 힘의 관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서로의 긴장된 균형감은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작업의 전개

1. 내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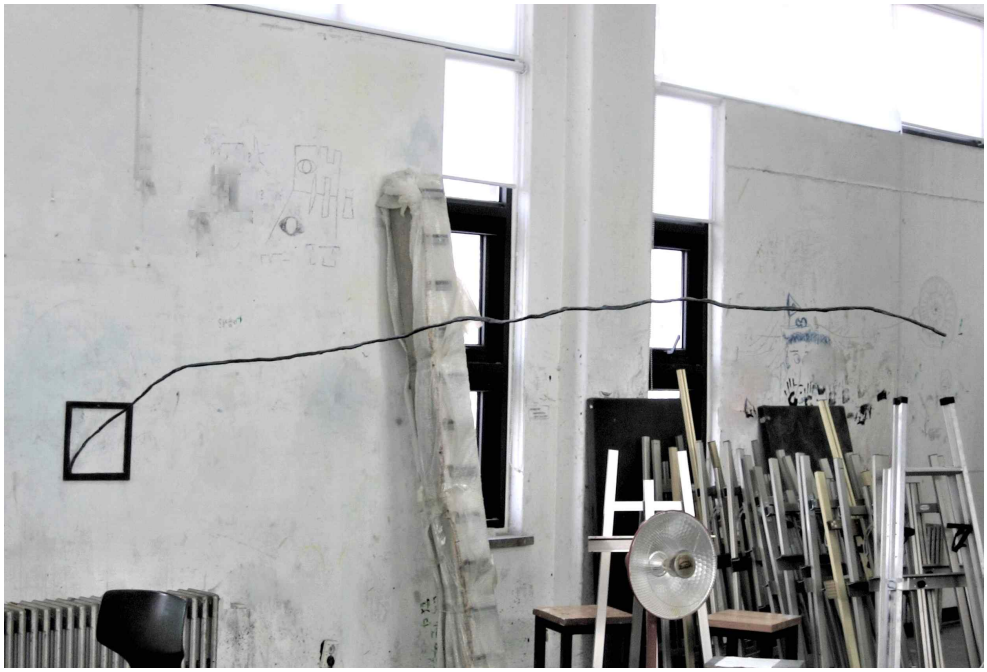
작업 1

작업장의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널려 있는 작업재료들을 관찰하다 보면, 작업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재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연구 작업의 시작점에는 철판이 작업의 재료로 눈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철판이 가지는 변형 가능한 속성과 평면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철판은 나에게 매우 차갑고, 무겁고 단단하며 생명 없음의 대표적 물질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열과 물리력을 가함으로써 변형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철판은 평면의 대상에서 새로운 존재를 공간으로 끌어내어 생성시킬 수 있는 재료로 관찰되었다.

이전에도 철판은 그러한 특성을 지닌 채 내 주변에 놓여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철판의 그러한 요소에 주목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나의 상황과 마음이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는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벽 앞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온통 채우고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통나무를 깎아 가느다란 이쑤시개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작업에 대한 노동[2]의 갈증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철판은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대상으로 눈에 들어왔다.

---

2) 결정된 지점으로 가는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일 수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 가는 노동은 나에게 순간순간이 새로운 생성의 과정이다. 나는 이런 노동을 즐긴다.



[작품 1] <작업 1> 철, 40×80×320, 2008

연구 작업의 시작점이 된 <작업 1>의 철판은 정사각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적인 형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것에서 생성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작업의 전제였던 상대적인 물성을 끌어내기 위해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선형으로 산소절단 한 후 가열하며 펴나가기 시작했다. 철선이 모두 펴졌을 때 전체적인 모습에서 작업의 구조와 과정을 바로 읽어 낼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철판 틀과 철선을 구별이 없는 하나로 보이게 만들었다. 철선과 철판이 다르게 인식되지 않는 이유에는 철선이 사각 철판의 모습, 즉 'ㄱ'자 형태의 각진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었다.

작업의 의도는 본 재료의 모습인 철판과 내가 펴낸 철선 사이에 더 많은 차이(대립 혹은 저항)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철선의 'ㄱ'자 부

분부터 열을 가하고 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펴고, 나머지 부분도 철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유사한 느낌으로 망치질을 했다. 철에 열을 가하고 망치질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철선은 나뭇가지와 같은 유기적인 형태가 되었고, 철판과는 다른 것으로 보였다.

철을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 가는 일은 철판을 따내고 펴가는 계획된 일을 하는 것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온전히 내 몸의 감각에 의지해 철판에 그은 선을 따라 철판 두께(9mm) 정도의 폭으로 절단해 나간 철선은 불규칙하고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단된 각봉의 모서리를 기계적으로 두드려 둥글게 만드는 것과도 다른 일이었다. 철의 좁아짐과 넓어짐에 따라 망치질의 강도, 횟수 등을 조절해 가며 고른 굵기로 두드려 만들어 가는 일은, 다음 발을 디딜 곳이 정해져 있는 계단을 오르는 일과 비교한다면, 길이 닦이지 않은 산을 오르며 길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았다.

나의 망치질은 예측되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으로 인해 다음 두드릴 곳이 결정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행위는 어떤 목표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한발을 딛어야만 다음 발을 디딜 곳을 찾는 과정이며, 정해진 일을 수행해 내는 노동이 아니라 재료와 내가 함께 갈 길을 조율해가는 여정이었다.

나는 철을 두드리는 단조작업을 하며 돌이나 나무를 깎는 것과는 달리 내가 철에 새겨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재료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그 과정이 곧 형태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완성된 작품은 벽면에 설치했다. 벽면에 설치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벽에 부착된 액자처럼 보이면서 철판의 평면성이 더 강조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철판의 평면성이 강조될수록 거기서 이어져 나와 공간으로 펼

3) 작업 노트, 2008

쳐진 철선은 입체성이 부각 되었으며, 평면에서 입체가 생성되는 느낌과 생동감을 느끼게 했다.

평면적인 요소와 입체적인 요소가 대비되듯이, 완성된 작품에서는 몇 가지 대조적인 관계가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이 긴장감이 생성의 느낌/생명력/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철판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쳐지지 않고 수평적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또 나뭇가지처럼 구불구불하게 허공을 향해 뻗어가는 철선의 표면은 사각 틀의 매끈한 철판 표면과는 대조를 이뤘는데, 이는 산업재의 철판에서 유기체가 생성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본인이 이 작업을 특정한 형태와 과정을 통해 만들고, 또 완성된 작품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던 데에는 작업 자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욕구가 반영되었던 듯하다. 형태적으로 틀에서 길게 뻗어져 나간 철은 외부의 압력(중력)에 의해 처질 것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고 싶은 의지처럼 보였다. 이 모습에서 외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버티는 나를 보는 듯했다.

한편, 이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재료에 대한 태도와 관계 측면에서 이전 작업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나의 노동에 의한 변형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에, 철판이라는 재료에 이전 작업에서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변형을 가하게 되었다. 전 작업에서 재료가 본래 가진 형태와 질감에 집중했었다면 철 작업에서는 본래 형태와 질감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내가 이 재료에 개입했을 때 변형되는 모습에 집중했다.

작업과정에서는 나 스스로가 작업의 일부가 되어 철과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령 이전에 돌을 다룰 때는[참고 작품1], 그 돌을 만났던 처음 형태, 본바탕을 거의 유지한 상태로 표면의 질감에만 개입하려고 했다.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했다. 이러한 작업에서

재료인 돌은 나의 개입을 안에 담은 채 본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철 작업에서는 마치 도화지를 오리고 접듯이, 본바탕 자체에 나를 개입했던 것이다.

[참고 작품 1] <무제> 2000

이렇게 본인의 적극적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작업과정에서는 오히려 철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철선을 수평적으로 뻗어 있게 하기 위해 선의 형태나 두께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예상한 그림을 벗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작업을 설치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선의 굵기로 인해 특정한 선의 각도나 형태를 벗어났을 때 철선이 처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선의 형태를 잡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선과 공간에서 오는 긴장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완성된 작품에서도 철의 존재가 더 부각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철과 내가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작업 2

<작업 1>을 제작하면서 질량의 변화 없이 하나의 철판에서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철판이 가진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을 조형적으로 풀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 2] <작업 2> 철, 30×50×60, 2008

<작업 1>에서는 작업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작업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아야 했기 때문에 철 자체보다는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면, 〈작업 2〉는 각진 철판 틀과 말아 놓은 둥근 철선 뭉치의 극명한 대비를 강조하려고 했다.

<작업 2>는 <작업 1>의 연장선의 느낌으로 펼친 선을 다시 말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다. 작업의 목적은 철판의 사각 틀과 가장 상반된 물질로 변화시켜 전혀 새로운 것이 사각 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우선 평평한 철판과 표면을 변화시키고, 9mm 두께가 주는 강함이나 무게감을 덜어내기 위해 단조작업으로 철선을 얇게 펴나갔다. 그런데 철을 얇게 펴기 위해 망치질을 하면서 <작업 1>에서 한 망치질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 1>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망치질의 흔적을 따라가는 어떤 연속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철선을 얇게 펴기 위한 단순 반복적인 일이었다. 두 작업에서 같은 망치질을 하면서 어떤 일은 작업의 내용이 되고, 어떤 일은 단순한 노동이 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단조작업으로 얇게 펴진 선은 두꺼운 철판과 다르게 다루기 수월한 물질로 바뀌었다. 이 선에 열을 가하고 말아가는 일은 철판을 다룰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과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말려가는 덩어리는 원래 철판 크기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시각으로 느껴지는 물성은 변했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질량은 변하지 않았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려 들어온 철선 뭉치는 얼핏 보면 틀 안의 철판이 변화된 물질이 맞는지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철판 틀과 대비를 이루었다. 또한, 사각 철판 틀과 둥근 철 뭉치 사이를 시선이 오가며, 철 틀에서 유연함이 보이고 철 뭉치에서 견고함이 보이는 작업 내부의 감각적 전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작품 2-1] <작업 2-1> 철, 30×120×40, 2008

또한, 본 작업에서는 철선을 말아가는 과정을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단계에서 설치를 시도해 보고 각자 다르게 전달되는 느낌을 관찰해보았다. <작업 2-1>은 말아가는 과정에서 설치한 작업으로, 철선 뭉치가 풀려 내려온 것처럼 보이면서 작업과정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며 다음 전개가 올라가는 것인지 풀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이 작업을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작업은 대부분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최종형태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모든 것은 과정이고 명확한 결론은 없다는 생각이 이런 작업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더군다나 연구 작업들에서는 계속 변화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철선의 구조로 인해 가변성이 확대되었다.

2. 확장된 관계

작업 3

어렸을 때 집에는 큰 모나리자 액자가 있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림 속에서 모나리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워 한 적도 있다. 그림은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형상을 담을 때가 많다. 나는 가끔 그림의 사물이나 인물에서 실재감을 느낀다. <작업 3>은 캔버스 자체가 실재가 되어 나오는 것이다.

[참고작품 3] <무제> 철 2008

[참고작품 3]은 <작업 1, 2>의 철판 틀이 액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철판 위에 철판 틀을 앞, 뒤로 덧대어 액자의 구조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단조작업을 통해 입체화된 철판 자체를 액자 내부의 내용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 철판에 열을 가해 두드려진 형태에서 느껴지는 철판의 물성을 2차원의 물질이 3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테두리에 액자 모양의 틀을 덧붙여 철판의 가변적 물성 자체를 그림의

내용으로 하는 작업이었다. 이 습작의 철로 된 액자의 구조는 <작업 3>에서 나무로 대체하면서 표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작품 3] <작업 3> 철, 나무 60×30×130, 2009

<작업 3>은 나무와 철판의 결합을 통해 서로의 관계나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다소 실험적 작업이다.

작업에서 나무는 산업재의 철판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구조재로 가공된 나무가 아닌 원목을 켠 판재를 사용하였다. 이 판재는 나무의 속부터 표

면까지 전체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생명을 갖는 하나의 개체로 해석되었다. 작업은 나무판을 먼저 구하고, 그 나무에 맞춰 철판의 크기를 정하고 작업하였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순서지만 원목의 판을 고집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재단된 나무는 나무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의 크기를 정하고 구하고 철의 크기를 맞출 수 있지만, 철판을 먼저 생각하고 그 크기에 맞는 원목 판을 구한다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만큼 나에게 나무판이 가지는 의미는 작업을 이루는 몸이자, 나의 선택에 의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작업 3>은 나무판의 크기나 두께로 인해 앞선 작업들보다 두꺼운 12mm 철판을 사용했다. 철판 두께의 변화는 작업과정이나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철판을 따내는 작업에서부터 내 몸의 감각으로 직접 산소로 절단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9mm 철판을 산소로 절단할 때에도 곧게 절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12mm 철판은 철판과 일정한 거리 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 도구를 사용하기 전 시도에서는 녹아내린 철이 다시 엉겨 붙으면서 선의 형태가 엉망이 되었다. 작업의 처음 계획부터 철 부분에서 단조작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나무와의 결합으로 전 작업들처럼 단일한 철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도구를 사용하여 따낸 철판은 레이저 절단을 한 듯 반듯한 각봉의 모습으로 재단되었다. 그렇게 절단된 철선을 펴나가면서 여기에 망치질을 한다면 아주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흔적으로 남아 억지스럽고 군더더기 같은 느낌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따르는 일과 기계적인 일은 결과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흐름을 따르는 일은 내가 작업에 스며들며, 인위적인 꾸밈은 군더더기며 작업 안에 내용으로 머무를 곳이 없다.

나무 안에서 말려져 나온 철선 뭉치는 평면적인 나무판이나 철 틀과 대비를 이루어 생성되어 나온 물질로 보이면서, 생명을 가진 나무와 대등

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생성된 나무의 나이테는 시간을 두고 쌓인 겹 구조로 보인다. 그 겹 구조를 이루는 나무판에서 나온 듯 보이는 철선 뭉치는 〈작업 2〉에서와는 달리 나무처럼 시간을 두고 자라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작업과정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것과 철을 다루는 일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원목 판은 나무가 갖는 생명의 상징체로 자체의 큰 변화 없이 철에 끼워지기 위한 가공을 하였다. 일은 목공소에서 해도 될 것 같은 다소 기계적인 일이었지만 정확하게 따내고 홈을 파는 일은 긴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했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냈을 때는 단순한 노동의 성취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철판의 네 면을 모두 끼워 넣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원하는 작업의 내용과 구조를 일치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의외로 철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2mm로 두꺼워지고 커진 철판은 전보다 훨씬 다루기가 어렵고 힘들어졌다. 특히, 가열한 철이 식기 전에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 꺾고 말아가면서 철에 덤벼들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 뭉치는 단조작업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철에 나의 노동이 흡수되어 철판으로부터 하나의 개체로 승화되어 나온 느낌이 들었다.

이 작업에서는 다른 재료(나무)와의 구조적 결합으로 철판 내부의 관계에서 벗어나 관계를 확장하면서 다중적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작업 4

[작품 4] <작업 4> 철, 나무 130×60×90, 2009

[작품4] <작업 4> 부분사진1

[작품 4] <작업 4> 부분사진2

〈작업 4〉는 전 작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철판과 나무의 작업 내부에서의 의미와 철판이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 속성 등을 생각하며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두 개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둘이 하나에서 이어져 나와 연결된 구조로 설정하고, 하나의 나무를 둘로 나누고 철판을 끼우는 그림을 그렸다.

앞서 말했듯이 본인은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긴장감이라는 단어를 쓴다. 어떤 관계가 접촉을 통해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긴장감은 닿아있지 않을 때 더 높아진다. 가늘고 강한 선재화 된 철은 이런 긴장된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당했다.

본 작업에서는 두 개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철판의 내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철판의 중간 부분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절단하고 펴나가서 양쪽 철판이 두 개체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늘어난 철선이 둘을 이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둘의 관계성을 강조한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철선이 다른 하나를 지지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12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철판의 3mm 두께의 변화는 단면적으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그만큼 지지력이 강해졌다.

철선으로 다른 개체를 지지하는 것은 철선의 두께만큼이나 선의 길이도 중력을 버티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두 개체의 거리는 조형적 의미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지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게 늘린 선을 말아서 엉킨 탯줄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태를 만들어 냈으며, 이 엉켜 있는 뭉치는 관계의 갈등이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힘과 같은 내용으로 보였다.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철이 가진 힘과 중력을 따라가며 만들어진 형태가 곧 내용이 되어 작업 내에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철판을 나무에 끼우는 일에 있어서 <작업 3>과 달리 철판의 내부에서 선이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시작되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철판을 나무에 끼워 넣을 수 있었고 더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나무의 따낸 부분은 철판으로 채워졌는데, 나무는 개체의 몸으로 보

이고 철판은 관계를 형성하는 물질로 보였다.

철선은 내부에 채워져 있는 물질이 이어져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어짐은 가늘지만, 외부의 저항을 이겨내고 다른 하나를 지지할 만큼 큰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읽혔다. 또한, 하나의 나무를 둘로 나누어 두 개의 개체를 만든 것은 하나의 내부적 관계로 설명될 여지를 남김과 동시에, 우리의 관계는 하나될 만큼 불가분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작업 5

[작품 5] <작업 5> 철, 나무 35×10×80, 2009

<작업 5>의 철판은 <작업 4>의 철판에서 선을 늘리기 전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철판이 나무에 끼워진 형태도 같지만 단지 나무가 통나무판이 아니라 내부의 재단된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이 다르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 나무는 <작업 4>의 나무에서 따내어진 부분 [참고 사진1]으로, 그 나무를 다른 용도가 아닌 본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강박감이 있었다. 같은 크기의 재단된 나무는 어디서나 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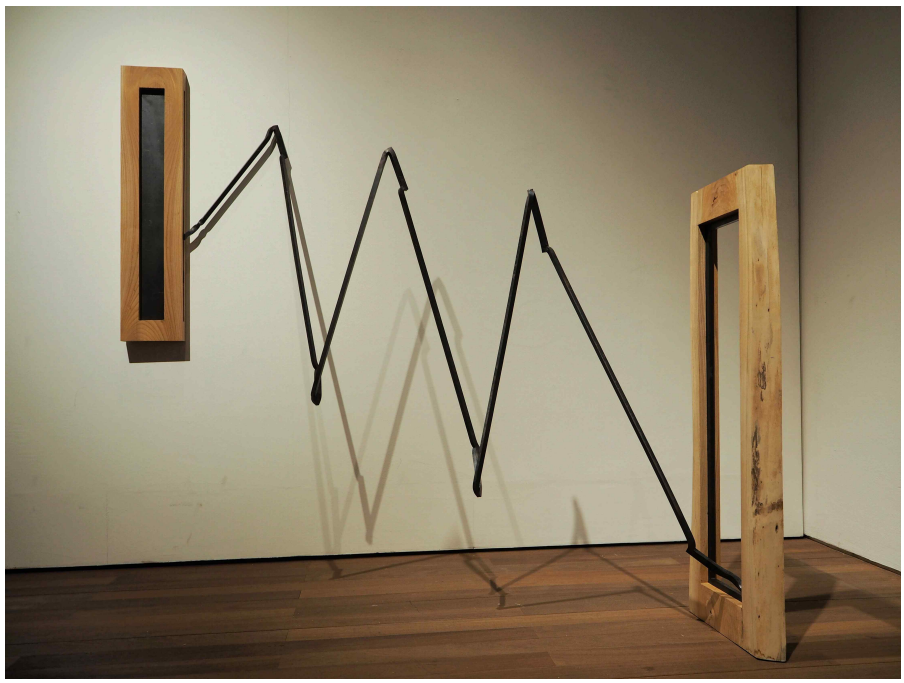
있지만, 나에게 따내진 나무는 유일하고 특별한 것이다. 작업을 하다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재료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것은 특별하게 여겨지고, 어떤 것은 버려지거나 버리기 아까운 재료 정도로 생각되는 이유는 그 작업에서 재료가 갖는 의미의 차이일 것이다. 보통은 작업과정 중에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남기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작업 3, 4>에서 나온 나무들은 통나무에서 나온 것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다. 나에게 <작업 3, 4>의 나무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나무도 그 작품에서의 의미로 영속성을 갖게 된 것 같다.

[참고사진 1]

<작업 5>는 늘리기 전 단계의 철판을 나무에 끼워 본 상태에서 멈췄다. 그 이유는 <작업 4>의 나무를 다음 작업에서 쓰겠다는 생각으로 나무 크기에 맞추어 모든 작업을 진행했지만, 다음 단계의 구상을 위해 끼우고 지켜보면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더 연장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전 작업의 내부에서 나온 나무는 본인에게만 그 의미가 연장됐을 뿐, 작업에서 하나의 개체나 존재적 의미로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멈춘 상태

에서 보았을 때, 변하기 전의 철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상상되는 모습과 정지된 모습을 오가며 늘어날 것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 6



[작품 6] <작업 6> 철, 나무 210×90×120, 2020

<작업 4>부터는 철판에서 선을 끌어내 이어진 관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6>은 외부의 틀에서 이어져 나온 내부의 철판이 거리를 두고 다른 위치에 놓이는 구조를 가진다. 하나의 몸에서 전체를 상징하는 외부와 내면을 상징하는 중심을 분리하여 외부와 내부의 관계에서 어떤 순환적인 의미가 발생하는지 관찰해보았다.

작업에서 철선은 유기적인 형태를 갖지도 않고 이어진 것을 지지하지도 않은 채 그저 이어지는 구조로 작용했다. 본인이 한 일은 두 개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할 수 있을 만큼 철선을 펴고, 떨어져 나온 내부가 본래의 몸체보다 더 높이 위치시키기 위해 사각의 철선에서 가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펼쳤다. 보이는 것보다는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선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했고 그렇게 되면 그 형태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주관적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철의 구조가 허용하는 최대한 높은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철선이 내부의 구조를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벽에 걸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은 작업의 재료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그재그 형태의 철선은 중간지점에 있는 것 같았다.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작업 중 가해질 수밖에 없는 완력으로 작가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철의 구조가 만들어 가는 선에 담기는 느낌이 들었다.

작업의 구조는 하나의 몸체에서 내부가 빠져나와 서로를 사선에서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가 빠져나간 통나무 판의 외형과 끼워진 철판을 담고 있는 내부가 갖는 관계의 의미를 거리를 두고 장치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했다. 이는 보는 사람에게도 작가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작업의 재료나 구조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보는 이의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였다. 물론 관계의 설정이나 장치자로서 의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작업 안에 나 자신은 최대한 담기려 하지 않았다.

내부가 빠져나간 통나무 판은 온전한 나무의 외형으로 인해 몸체로 인식되었고 빠져나와 벽에 기대어있는 내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나 내면으로 읽혔다. 이 둘의 거리를 둔 바라보기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를 통해 자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다. 이런 작업의 내용은 나와의 거리두기 통해 나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일상을 벗어나거나 주변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는 일 등이다. 바쁜 일상 속에 오랜 시간 이런 노력들을 못할 때면, 나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퇴보한다는 생각을 한다. 작업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되새기는 과정이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3. 새로운 관계의 시작

작업 7

[작품 7] 〈작업 7〉 철, 33×40×18, 2020

[작품 7] <작업 7〉 부분 사진

〈작업 7〉은 본 연구 작업을 시작할 때로 돌아가 철에 대해 다시 알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앞으로 작업에서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의 몸에 굳어진 의식으로부터 벗어 날 필요를 느꼈다.

본인은 그동안 작업에서 철판의 선재화를 이용한 조형 요소로 여러 의미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한정된 범위에서 철판의 물성을 이용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부분으로도 작업의 확장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의식이 아닌 내 몸에 녹아있는 철에 대한 체험이 깊을수록 작업에서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 작업은 현재 본인의 자화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연구 초기 철판으로만 만든 작업에서는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벽에 부착하거나 기대어 지지하는 구조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철판을 'U'자로 만들어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 있게 했다. 이유는 전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작업의 진행은 처음 철판 작업을 연상하며 철판의 모서리를 따내고 가열과 망치질을 반복하며 조금씩 밖으로 돌출시켜 나갔다. 이 과정은 철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만나 새로 시작해 가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앞선 작업에서 철선으로 형태를 만들어 갈 때와 달리 12mm 철판을 돌출시키는 일은 예상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철판은 열에 달궈 졌을 때와 식었을 때가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열을 가해서 물성을 변화시킨 철판을 두드리고 식은 철판을 다시 가열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철의 가변적 물성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철의 물러짐과 단단해짐의 반복적인 경험은 모서리의 얇아진 부분이 망치질로 어렵지 않게 변형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는데, 실제 식었을 때는 꿈적도 하지 않으면서 철의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철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을 돌출시켜 형태를 만드는 일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 모루를 이용해 형태를 잡아가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오랜 시간의 단조작업이 필요했고, 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시 잡아가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망치질의 흔적이 쌓일수록, 찢어져 나온 듯 보이는 모서리부터 철판으로 생명이 전이되는 것처럼 보였고, 작업에서와 동일하게 나의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 같았다.

나가며

내가 선택하는 작업의 대상(재료)은 스스로 이야기(내용)을 담고 있고, 자연의 섭리를 내재하고 있다. 나의 작업에서 재료는 자신의 속성을 통해 자연의 섭리(질서)를 담고 있는 주체로 제시됨과 동시에 나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 작업은 나의 상황과 맞닿은 철판이 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철판의 변형 가능성에 집중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작업을 거듭하면서 철판의 평면성이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조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한정된 크기의 철판으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철판의 부분을 선의 형태로 늘리는 작업을 했는데, 선재화 된 철은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데 결정적 조형 요소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철판의 조형 요소로 인해 다양한 관계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작업을 연장해 나갈 수 있었다. 다른 재료(나무)와의 결합으로 관계의 표현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었고, 나무를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면서 재료를 하나의 존재적 대상으로 여기는 연구자의 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작업을 이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 <작업 7>은 다시 철판에 집중하는 작업으로 철판 자체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작업을 새롭게 연장해갈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도 판 목 차

[참고작품 1] ····· 3, 13
[참고작품 2] ····· 3
[참고작품 3] ····· 17

[참고사진 1] ····· 25

[작품 1] ····· 10
[작품 2] ····· 14
[작품 2-1] ····· 16
[작품 3] ····· 18
[작품 4] ····· 21
[작품 5] ····· 24
[작품 6] ····· 26
[작품 7] ····· 29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lationships Through the Plastic Materiality of Steel Plates

Sung, Ji Hoon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steel plates being regarded as materials for Art-making by the author. As the author was struggling to get started, the 9mm steel plates appeared to be ingredients that would provide relief for his thirst for work. The author considers the material as a subject with which to form relationships with. The material gives life by keeping its original appearance and revealing its materiality. The rigid steel plate has a two-dimensional quality, with its sculptural aspect being its plasticity, which enables the embodiment of generative value. The labor involved in the work process was deemed to be a subject that could be expressed in the form of life force.

The author considers his perception of 'materials as beings' to be based on his own worldview centered around relationships, that the various phenomena of the world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that the value of being comes from relationships. In this sense, the work is a confi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inter-being between the author and the material.

The study began with the discovery of the plasticity of steel plates, which enables the transformation of steel plates into varying structures, during the process of 'drawing a line out of steel' in an effort to expand the expressive capacity of steel plates. This structural malleability made it possible to articul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assemblies, and serve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work.

There are times when the author receives consolation from, or sees an order that help him understand the world in, minor beings that are usually overlooked. In these moments he feels that hi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is expanded, and that he and the world are connected as one. The forming of relationships in the author's work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world, as well as an exercise in self-reflection through various subjects.

This study aims to give life to these subjects, and to observe the relational order that derives from the perception of a being.

keywords: subject, being, life force, relationship-centric worldview